

낙후지역 발전, 개발촉진지구도 한몫 거든다

신안·완도 등 14개 郡 총 1318km² 지정 2019년까지 141개 사업 2조4천억 투입 稅감면 등 각종 혜택...기업유치 '청신호'

도시와 농촌 간 만성적인 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낙후지역 개발에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개발촉진지구에는 전국 하위 30% 미만의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 전체 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지구당 50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4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취득세 면제, 제

산세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져 민간기업 유치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지역 개발촉진지구는 신안과 완도를 비롯해 구례·장흥·진도·보성·영광·화순·강진·장성·함평·고흥·무안 등 모두 14개 군에 1318km²다.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원, 민간투자개발 등 모두 141개 개발사업에 2조385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까지 국비 6685억원과 지방비 2000억원, 민자 2109억원 등 모두 1조794억원을 투입해 지역

간 연결도로, 기반시설, 보성 녹차 문화공원, 진도 회동관광지, 강진 칠량 장미화훼단지 등 69건을 완료하고 장성 황룡 행복마을, 나노산단 조성, 함평 어촌정주향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3707억원을 지원받아 완도~신지 연륙교 등 28개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올해는 장성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243억원의 국비를 투자하고 있다. 올 8월에는 무안군 면적의 9%가 개발촉진지구로 신규 지정돼 민간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부터 휴양관광지,

농공단지, 은퇴자도시,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164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 무안지역 내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편차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경제국장은 "앞으로 잔여 사업비 확대 지원과 기존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계획된 기간안에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담양·해남·나주 역시 조속히 지구지정을 받아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남해 주말상설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인 판 공연 모습.

나주시 10월 한달 관광객 유치 올인

주말공연 '판'·황포돛배 승선 체험 등 다채

나주시가 10월 한달간 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목사고를 나주의 주말상설공연인 '판'을 선보이면서 황포돛배와 영산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지난해 처음 선보였던 주말상설공연 '판'은 정체성과 소모성 문제가 제기됐던 영산강문화축제를 대신해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축제를 새롭게 변모시킨 신개념 공연이다. 주말과 휴일에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공연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에게 주말 나들이공간과 놀이터 개념의 복합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역사관광도시 나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매일시장 철거로 조성된 금남동 야외공연장

에서, 일요일에는 영산포 흥어의 거리와 선착장 등지에서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진 주말상설공연을 펼쳐 역사문화 전통성이 가미된 수준높은 예술문화를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시립국악단과 합창단, 하늘다래예술단과 중국기예단, 남미와 멕시코 음악공연단과 태극 전통춤 공연, 전라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비보이, 힙합, 팝, 락, 매직 마술쇼, 가요콘서트 등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나주읍성권 일원에서 열리는 달빛기행 프로그램과 제39회 전남민속예술축제, 일요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의학박람회와 연계하는 한편 10월 1일부터는 영산포 선착장에서 황포돛배 승선체험을 실시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



세계적 명물

보성 녹차밭

美 CNN '놀라운 풍경' 31선

보성녹차밭이 미국 CNN이 선정한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선(31 beautiful sights on this incredible planet)'에 선정됐다. 보성군은 23일 "CNN이 이달 초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각지의 뛰어난 경치 31선을 선정, 소개했으며 한국에서는 보성녹차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12번째로 소개된 보성녹차밭은 한국차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드라마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설명과 함께 매년 5월 열리는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와 12월에 개최되는 보성차밭 빛축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해남·진도서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 잔치

27일 개막 '명량대첩 축제' 기간 전국 22개 팀 참가 열띤 공연

오는 27일 개막하는 '2103 명량대첩 축제' 기간에 전국의 강강술래 공연팀이 참가하는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이 펼쳐진다. 강강술래는 전남 서남해안 지방에서 전승돼온 노래와 무용이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을 물리치기 위한 전설로 활용되기도 했다. 1996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8호)에 이어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전남도는 인류 무형유산인 강강술래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강강술래 한마당을 열고 있다. 이번 한마당에서는 전통 강강술래를 비롯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창작

강강술래(국민생활댄스), 청소년 강강술래 사생대회 등이 펼쳐진다. 해남과 진도를 비롯해 광주와 전남, 타 시도 등 전국에서 22개팀이 참가한다. 28일 오후 1시 해남 우수영 술래마당에서 10개팀, 29일 오전 10시 진도 녹진 해상무대에서 12개팀이 기량을 뽐낸다. 국민 생활체조로 발전이 기대되는 강강술래 국민생활댄스 경연대회는 초등학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까지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32개 팀이 참가한다. 전국 청소년 강강술래 사생대회는

150여명이 참가, 28일 오후 1시부터 녹진 이충무공 동상 앞에서 열린다. 한편 전라도민의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명량대첩축제는 해남 우수영에서 27일부터 3일간 열리며 해전재현, 만가행렬, 초요기를 올려라 등 40여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은숙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온 겨레 강강술래 한마당은 명량대첩축제를 빛낸 명품행사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기씨부인전 보러오세요"

내달 1일 장성 군민의날 첫선

장성군은 23일 "자체적으로 제작한 연극(음악극) '기씨부인전'을 내달 1일 군민의 날 행사 때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연극 기씨부인전은 조선 중기 대학자인 '고봉 기대승'의 철학철을 빛낸 명품행사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피난하던 도중 황룡 요철정에서 왜군에게 손목을 잡히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은장도로 팔을 절단하고 황룡강에 투신한 애절한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은 시나리오 및 음악 제작 등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극단 연바람이 연출을 맡았다. 군 문화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청렴과 충절의 고장인 장성군의 특색을 반영한 작품으로 제작했다"며 "군민의 날 외에도 11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공연을 준비하는 등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바른성사! 결혼성사까지...**
(백영숙 이사, 유정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부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질,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